

# 베스트 중 최고 큐레이팅... 눈앞 명작들에 감동

## 하정웅 명예관장 기증 '25년의 서사' 살펴보니

‘하정웅컬렉션 1993-2018’ 기증 작품들 중 ‘엄선’ 선배 11월까지 하정웅미술관... 회화 36점·아카이브 20여점

광주 시내 곳곳에서 봄을 맞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시행사가 가지 개를 켜고 있다. 봄이 되면 계절생태학상 그렇듯 긴 겨울 동안 움츠리고 있던 모든 생명들이 깨어난다. 미술 행사들도 생명체는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드문 드문 열리다가 봄이 되면서 일제히 개인이나 단체 가릴 것 없이 전시가 개막하곤 한다. 올해 역시 다른 년도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유독 눈에 띄는 공간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가볼 필요가 있다. 로컬에서 열리는 전시들도 예술가들의 열정이 배어있는 것이어서 더할나위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입소문으로 명작이라고 소문난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없는 것이 지역 현실인 만큼 모처럼 한번 방문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 또한 매우 유익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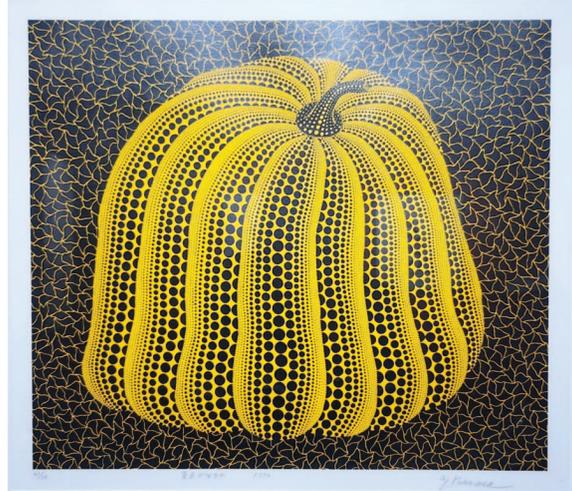
다채로운 기획과 가치들을 추구하는 크고 작은 전시들이 잇따라 개막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만 해도 무등현대미술관의 조경태 작가 전시(10일~4월 30일 ‘명명하는 별들에게 전’)와 이강하미술관 전시(2월 20일~4월 26일 광주3·1만세운동 기념 ‘결연한 기록들’전) 등이 일제히 개막을 해 미술인들 중 개막행사에

나러 온 사람들은 분주한 한때를 보내야 했다. 이처럼 시내 곳곳에서는 척박한 가운데 전시문화를 만들어내는 작가와 기획자, 미술관 및 갤러리 등의 노력이 깃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광주는 ‘광주비엔날레’라고 하는 브랜드 미술행사를 중심으로 연중 전시가 끊임없이 개막했다가 폐막되곤 한다. 이런 가운데 하정웅미술관에 마련된 한 컬렉션전이 단연 눈에 띄고 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보기 힘든 명작 소장품들이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장에는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름만으로도 알만한 세계적 대가들의 작품이 큐레이팅돼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광주시립미술관이 하정웅 명예관장으로 부터 기증받은 작품들 중 이번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들이 다수여서 더 애착이 가는 전시다.

전시는 ‘하정웅컬렉션 1993-2018’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개막, 오는 11월 25일까지 4~6전시실에서 열리는 하정웅컬렉션전이 그것이다. 출품작은 회화 36점과 아카이브 20여점.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해 프랭크 스틸라, 마르크 샤갈, 마리 로랑생, 베르나르 뷔페, 앤디 워홀, 조르주 루오, 살바도르



파블로 피카소 작 '여인상' (1962년 작)



쿠사마 야요이 작 '황색 호박' (1994년 작)

달리, 호안 미로, 쿠사마 야요이 등과 이우환 박사로 유명국 전회화 등 국내외 거장들이 망라됐다. 이번 전시는 미술사적으로 하정웅 컬렉션에서 판화작품 중 베스트 중 베스트를 엄선했다고 하니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명작들이 있네” 하며 놀랄 수 밖에 없을 터다. 이런 명작 전시가 가능한데는 하정웅 명예관장의 기증 덕분이다.

명단에 들어있는 전회화 작가의 경우 하 명예관장의 기증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예 ‘미륵보살’ 등)이다. 하 명예관장의 기증 이력이 60여년인데 그 출

발선상에 있는 작가이기 때문이다. 아마 재일작가들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강력하게 흡입했기에 이들 작가를 가버미 보지 않고 소장해 나신 것으로 보인다.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던 하 명예관장은 재일사업가이자 문화 후원가로 작품을 매입해 그것이 필요한 공간에 기증하는 것으로, 사회 환원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소신을 실천한 셈이다.

하 명예관장은 평생 1만 5000여점을 기증했다. 그중 광주시립미술관에 25년에 걸쳐 2603점을 기증했다. 한쪽에는 그동안의 삶의 서사가 묻어있는 히스토리

를 짚어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실린 신문이나 각종 도록, 작품 진품서, 서신 등 각종 아카이브 자료가 망라돼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하 명예관장의 기증 정신은 물론, 기증 작품에 대한 의미 및 전반적 이해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전시장에 만난 윤익 관장(광주시립미술관)은 하 명예관장의 기증에 야말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관장은 이번 컬렉션전이 기증정신으로 점철된 하 명예관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번 전시는 6전시실이 하정웅명예관장을 기

리는 공간이었는데 이번 전시를 위해 연보를 부착하는 등 전시 아카이브를 새롭게 꾸몄다. 이 전시공간 임구에 부착된 ‘1993-2018’이라는 숫자가 결코 가볍게 다가오지 않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듯 오랜 시간 동안 애써 구입한 명작 등 작품들을 쉽게 어디다 기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 숫자와 숫자에 새겨진 그의 삶과 시간들이 오려려 경이스럽게 다가왔다. 결코 가볍지 않을 하 명예관장의 기증 역사가 짙게 드리워진 현장이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문화통plus’ 봄호 발간 ‘귀거러사’ 8쪽 침병 발굴

(사) 광주문화발전소가 발행하는 자매지 ‘문화통plus’ (발행인 지형원) 통권 59호인 봄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고려의 충신으로 이성계와 함께 조건 개국의 기틀을 만든 삼봉 정도전(鄭道傳, 1312~1398)이 나주 문평 유배 당시 썼던 ‘귀거러사 8쪽 병풍’을 발굴, 최초로 공개한다. 가로 34cm, 세로 55cm 크기의 침병(枕屏) 형태의 이 병풍은 나주오씨 집안에서 대대로 소장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삼봉 정도전이 나주 문평에 유배됐을 당시 자신도 소동파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병풍에는 총익부 관인과 매장 조지운, 사천 이병연, 의재 지윤영 등이 100여년 전에 배운(背誦) 한 기록이 남겨진 품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장기 시리즈 ‘전남이 마을 1박 2일’에서는 10총3호의 명문으로 알려진 원주이씨의 600년 집성촌인 해남군 마산면 산막리와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를 찾아 임향경위와 남거진 문화유산을 집중 취재했다. 호남 임향조는 강릉대도부사를 지낸 15세 이영화로 계유정란의 화를 피해 해남 마산으로 내려와 산막을 짓고 살았는데 후손들이 영달해 10명의 충신과 3대의 효자를 배출해 충효의 가문으로 불린다. 이밖에 12권의 책을 쓴 이비인후과 의사 조흥주 박사 이야기, 4월 ‘아리랑’으로 컴백하는 BTS 이야기 등이 담겼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시립창극단은 VR·AR·XR 기법을 적용한 창극 제작발표회를 14일 오후 3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 무대 모습.

## ‘전통×기술’ 실감형 콘텐츠로 만나는 인기 마당창극

### 시립창극단 제작발표회 14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열어볼 결심’에 VR·AR·XR 적용... 전통 창극 ‘새 지평’

지난해 광주시립창극단 송년공연으로 전서 매진을 기록한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이 가상·확장현실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무대 형식으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립창극단(김용호 예술감독)은 VR·AR·XR 기법을 적용한 창극 제작발표회를 오는 14일 오후 3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층 VX스튜디오에서 선보인다.

‘무대, 경계를 넘다: 열어볼 결심’이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번 창작 발표회는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을 VR·AR·XR 기술을 입혀 선보이는 자리다. ‘열어볼 결심’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

인공들을 중심으로 흥부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엇갈린 욕망과 갈등을 승화시킨 작품이다. 이 자리를 통해 전통 마당창극이 무대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가상 공간과 확장 현실 속에서 구현될 전망이다. 관객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이야기와 공간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창극을 경험할 수 있어 전통예술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창극의 미학과 서사 구조 자체를 확장하는 실험으로 기대된다. 이번 창극 제작 발표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창의체험형 콘텐츠 제작 지원 작품으로, 국립극원, 국립창극단의 창극과는

차별화된 기획과 제작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전통의 서사적 힘과 동시대 기술이 만나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시립창극단은 내다봤다.

김용호 예술감독은 “이번 제작발표회를 통해 선보일 무대는 국공립예술단체 최초로 VR·AR·XR 기법을 적용한 창극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전통 마당창극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 가상 공간과 확장 현실 속에서 구현돼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시도”라고 말했다.

제작 발표회는 100석 한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녹화돼 향후 광주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관람을 희망하면 포스터 속 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하거나 광주시립창극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예술이 지닌 치유·생성의 힘 나눠볼까 은암·금봉미술관 공동 ‘청유’ 초대전 오늘부터

광주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과 함께 병연 새봄을 맞아 문인화 예술의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되살리는 2026년 봄 맞이 ‘淸遊 淸유’ 초대 기획전을 13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갖는다. 이에 앞서 지난 2026년 3월 5일, 예술의 근원을 몸으로 되새기는 휘호행사 ‘먹풀어 흥을 나누며’를 마련해 문인화 예술의 삶이 있는 순간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바 있다.

원로 초대작가인 금봉 박행보 선생은 “청유는 맑은 정신으로 예술과 자연을 거닐며 사유의 깊이를 더하는 동양적 미학의 한 경지”라며,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결을 고요히 씻어내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창작의 숨결이 피어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시(詩)·서(書)·화(畫)가 한 화면 안에서 서로의 여백을 건너 호흡하는 문인화 예술의 원형을 통해 삶의 태도이자 정신의 수양임을 환기한다. 붓끝에서 번지는 먹빛 형상은 마음의 온도가 사유의 흔적이 된다는 것이다. 한 획은 바람처럼 가볍게 스치고, 또 한 획은 선택처럼 깊이 내려앉으며 화면 위에 시간의 층위를 쌓는다. 시가 여백을 열고, 서가 기운을 세우며, 화가 그 결을 따라 흐를 때, 화면은 더 이상 종이 아닌 사유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특히 휘호행사 ‘먹풀어 흥을 나누며’는 창작의 순간을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삶이 있는 예술의 장으로 펼쳐졌다. 금봉미술관 한상운 관장은 “작가들이 한자리에



금봉 박행보 선생 휘호 작품

모여 붓을 들고, 먹의 농담과 필획의 리듬 속에서 서로의 기운을 나누는 순간, 예술은 공동의 숨결로 확장된다”며, “완성된 결과보다 더욱 깊이 남는 것은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생동하는 필림”이라고 밝혔다.

휘호 이후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전통 문인화의 계승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적 감각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확장한다. 전통이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오늘의 감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정신이며, 예술이 공동체의 정서를 잇는 매개임을 드러낸다.

채종기 관장은 “새봄의 문턱에서 펼쳐지는 ‘淸遊 淸유’ 기획초대전은 맑은 사유의 유영이자, 예술이 지닌 치유와 생성의 힘을 나누는 자리”라고 전했다. 개막식은 13일 오후 3시.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